

# 2019 서순실 심방 본풀이 채록

## 칠성본풀이

칠성본풀이>본풀이

장나라 장설룡에 데감님 살읍데다. 송나라 송설룡이 부인님이 살읍데다. 남단법답(南畝北畝) 유기전답(鋤器田畝) 좋읍데다. 이십스물 삼십서른 뉘어도 아기 엇언<sup>1)</sup> 모후유화(無爲而化) 허싯데다. 좋은 몸천 동계남(東觀音) 은중절 법당(法堂) 수록<sup>2)</sup> 올리난 아기씨가 탄생을 허읍데다. 현 설 두 설 서너 설이 뉘어가난.

“장나라 장설룡이 데감님 천하(天下) 베실<sup>3)</sup> 살레 읍서. 송나라 송설룡 부인님은 지에(地下) 베실 살레 읍센.”

허난,

“아덜이나 그뜨민 책실(冊實)로나<sup>4)</sup> 데령 거주만은 딸 조식(子息)이랑 아니 뉘로구나. 늦인덕 정하님아, 우리덜 천하 베실, 지에 베실 살레 갓당 올 때까지 아기씨 궁 안에서 밥을 주곡, 옷을 주엄시민, 종반역<sup>5)</sup> 시겨주민.”

허난, 아방 증근<sup>6)</sup> 열쇄 어멍 갓영 간다. 어멍 증근 열쇄 아방 갓영 간다. 일은으덜 상거심 조심통쇄<sup>7)</sup> 질로<sup>8)</sup> 절강 증가두영, 천하 베실, 지하 베실 살레 간다. 아기씨는 미릿 나오란 아바지 탕 가는 가마(駕馬) 연분줄에<sup>9)</sup> 가단 보난 묵은 각단밭디<sup>10)</sup> 세 각단밭더레 떨어지난 흥학 흥학 울어간다. 데스님이 네립데다.

“나 데령 걸읍서.”

“난 몰른다.”

소스님이 네립데다.

“나 데령 걸읍센.”

얼굴은 보난,

“우리 법당(法堂)에 오란, 불공(佛供) 들연 난 애기로구나.”

묵은 각단 세 각단을 비연<sup>11)</sup> 오장삼을<sup>12)</sup> 멘들안 장삼 속에 담양 앓언<sup>13)</sup> 내려 오라간다. 권제(勸齋) 받으레 동(東)으로 들연 서(西)으로 나아간다. 아기씨는 보난 간고무중 헤엿구나.<sup>14)</sup>

“장설룡 데감님, 송설룡 부인님아, 아기씨 간고무중 헤엿우다. 삼 년 베실 석 들에, 석 들

1) 엇언: 없어서.

2) 수록: 수록 불공.

3) 베실: 베풀.

4) 책실(冊實): 책 심부름꾼. 수행비서.

5) 종반역: 종의 신분을 벗김.

6) 증근: 잠근.

7) 상거심 조심통쇄: 큰 빗장으로 채우는 자물쇠.

8) 질로: 저절로.

9) 가마(駕馬) 연분줄: 가마 채.

10) 각단: 성장이 나빠서 키가 작은 띠(茅) 초가지분을 이는 재료로 쓰임.

11) 비연: 비어서.

12) 오장삼: 띠나 짚을 재료로 하여 가방 모양을 만들고 그 속에 고기 따위를 담아 가지고 다니게 만든 물건. 무속의례에서 오장삼은 곳을 마칠 때 제물을 조금씩 넣어 멀리 들로 나가 버릴 때 사용함.

13) 담양 앓언: 담아 가지고.

14) 간고무중 헤엿구나: 간 데 없구나.

베실 단 사흘에 ㄹ깡<sup>15)</sup> 읍센.”

헤연, ㄹ깡 오란 아기씨를 좃젠 수소문을 네여도 못헤엿구나. ㅎ를은<sup>16)</sup> 잇이난,  
“소승은 절이 뵈네다.”

“너네 법당(法堂) 강 불공 드런 난 애기 간고무중 헤엿구나. 단수육갑(單數六甲) 오용팔관(五行八卦)을 짚어보렌.”

허난, 데스님은,

“앗아도<sup>17)</sup> 앓인디 불 만 사도<sup>18)</sup> 산 디서 불 만헨 디 잇우덴.”

허난 ,

“요 놀이 중이 조궤(造化)로구나. 저 중 심으렌.”

허난, 축지법을 쓴다. 보은낭게, 한낭게를<sup>19)</sup> 잔뜩 헤연, 철리말리(千里萬里), 말리(萬里)만이 도망가부러트구나. 올레에<sup>20)</sup> 간 보난 싱근 돌에, 몰팡돌(下馬石)이 잇엇구나. 오장삼이 잇엇구나. 그디 클런<sup>21)</sup> 보난 아이고~ 유울엇구나.<sup>22)</sup> 애기 베염 ㄹ치<sup>23)</sup> 눈은 썰롱, 아이고 베는 테독 ㄹ치 베엿구나. 누추허고 더럽고 추접허다.<sup>24)</sup> 동이 와당 쉼철인 아덜 불러다가 무췌설갑을<sup>25)</sup> 짚 저 바당더레 띠우난에 들물 나민 서이 와당, 썰물 나민 동이 와당더레 흥당망당 떠 덩기단 남방국더레 들영 온다.

산지 칠머리<sup>26)</sup> 들젠 허난 칠머리 감찰지관(監察地官)이 췌어지영<sup>27)</sup> 못네 들로구나. 화북(禾北)으로<sup>28)</sup> 들저 굽등지 가릿당 한집이 췌어근 못네 들어간다. 삼양(三陽)으로<sup>29)</sup> 들젠 허난 삼양 감낭 알 시월 도병수(十月都兵事)가 췌영 못네 들로구나. 신촌(新村)은<sup>30)</sup> 큰물머리 들젠 허난 큰물머리 한집이 췌영 못네 든다. 조천(朝天)<sup>31)</sup> 관탈 알로 들젠 허난 세콧할마님이 췌연 못네 들로구나. 신흥(新興)으로<sup>32)</sup> 들젠 허난 볼렛낭 박씨 할마님이 췌어지영 못네 들엇구나. 함덕(咸德)으로<sup>33)</sup> 들젠 허난 ㅎ 물 두 물 서물할망 급서왕 한집이 췌영 못네든다. 북촌(北村)<sup>34)</sup> 다레섬 모로 들젠 허난 영산조, 노산조, 금백조 가릿당이 췌어근 못네 든다. 동북(東福)으로<sup>35)</sup> 들젠 허난 동북은 상이와당<sup>36)</sup> 몰켓낭<sup>37)</sup> 굴묵낭<sup>38)</sup> 일뤼 한집 췌영 못네 든다. 김녕(金

15) ㄹ깡: 마쳐.

16) ㅎ를: 하루.

17) 앓아도: 앓아도.

18) 사도: 서서도.

19) 보은낭게 한낭게: 안개.

20) 올레: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길.

21) 클런: 풀어서.

22) 유울엇구나: 시들어 말랐구나.

23) 베염 ㄹ치: 뱀갈이.

24) 추접허다: 더럽다.

25) 무췌설갑: 무쇠로 만든 상자.

26) 산지 칠머리: 제주시 건입동에 속한 지명(地名).

27) 췌어지영: 세어서.

28) 화북(禾北): 제주시 화북동.

29) 삼양(三陽): 제주시 삼양동.

30) 신촌(新村):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31) 조천(朝天):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2) 신흥(新興):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33) 함덕(咸德):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4) 북촌(北村):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5) 동북(東福):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36) 상이와당: 상여화단.

37) 몰켓낭: 상여의 밑을 받치는 장강목(長杠木).

38) 굴묵낭: 느티나무.

寧)으로<sup>39)</sup> 들젠 허난 알성세기 밧성세기<sup>40)</sup> 썬어근 못네 들엇구나. 무주 월정(月汀)은<sup>41)</sup> 들젠 허난 베롱게 해신당이 썬연 못네든다. 행원(杏源)으로<sup>42)</sup> 들젠 허난 남당 알에 종이데서가 썬연 못네 들엇구나. 한동(漢東)으로<sup>43)</sup> 들젠 허난 황세웃밭 웃세웃밭 부데오름 상갈기 솟아나듯 구월 구일 한집이 썬영 못네들엇구나. 팽대(坪垚)로<sup>44)</sup> 들젠 허난 고씨 책불 갯마리로<sup>45)</sup> 들젠 허난 먼동 소천국이 썬엿구나. 저 상세와리(上細花里)<sup>46)</sup> 물코 조계와당으로<sup>47)</sup> 들젠 허난 천조 백조 하르바님 금상 한집이 썬여지영 못네 들로구나. 상두(上道)로<sup>48)</sup> 들젠 허난 도레 막음질 썬영 못네 든다. 하도(下道)로<sup>49)</sup> 들젠 허난 난드르 각시당이 썬여지연 못네 들로구나. 종달이(終達里)로<sup>50)</sup> 들젠 허난 알로 두문계<sup>51)</sup> 소섬에서 가지 갈라오던 장하르방 장할망이 썬연 못네 들엇구나. 오조리(吾照里)로<sup>52)</sup> 들젠 허난 족지할망당에 안족지 밧족지가 썬연 못네 든다. 시흥리(始興里)로<sup>53)</sup> 들젠 헤엇더니 시흥리는 허씨 여천 김씨 여천 두루 할망 썬영 못네 들엇구나. 성산포(城山浦)로<sup>54)</sup> 들젠 허난 항퍼두리<sup>55)</sup> 짐통정(金通情) 만리토성(萬里土城)을 들렛구나. 들물 고게 탕 앓언 오는 게 함덕(咸德) 무생이코지에<sup>56)</sup> 올랐구나. 옛날 평사동(平沙洞)<sup>57)</sup> 일곱집이 일곱 줍수(潛嫂) 옛날 앞물에 들레 동경국 메망사리<sup>58)</sup> 금태왁 아끈<sup>59)</sup> 빗창<sup>60)</sup> 한 빗창 아끈 갈코리<sup>61)</sup> 들런 물에 들렝 오란 무생이코지 보난에 무썬설갑이 잇엇구나. 그걸 봉간,<sup>62)</sup>

“니가 봉갓이나? 나가 봉갓이나?”

하도 싸움 타작이 낫구나. 영물<sup>63)</sup> 송동지 하르바님 송동바구니<sup>64)</sup> 불락 춤데<sup>65)</sup> 들란 앞물에 야 불락 낚으레 내려오단 보난 일곱집이 일곱 줍수 싸왓시난,

“아이고 요놈이 썬베난 년덜야, 무사 영 아침 물에 들레 오란 니 머리, 나 머리 튼으멍 싸왓시냐?”

“하르바지 요거 나가 봉갓우다.”

- 
- 39) 김녕(金寧):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 40) 알성세기 밧성세기: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속한 지명(地名).
  - 41) 월정(月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 42) 행원(杏源):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 43) 한동(漢東):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 44) 팽대(坪垚): 제주시 구좌읍 팽대리.
  - 45) 갯마리로: 제주시 구좌읍 팽대리 동동 바닷가 마을의 옛 이름.
  - 46) 상세와리(上細花里):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 47) 물코 조계와당으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속한 지명(地名).
  - 48) 상도(上道):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 49) 하도(下道):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 50) 종달이(終達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 51) 두문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의 포구(浦口) ‘두무닛계’라고도 함.
  - 52) 오조리(吾照里):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 53) 시흥리(始興里):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 54) 성산포(城山浦):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
  - 55) 항퍼두리: 항파두리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있음.
  - 56) 무생이코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속한 지명(地名).
  - 57) 평사동(平沙洞):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마을.
  - 58) 메망사리: 해녀들이 물질할 때 채취한 해산물을 담아 놓는 도구.
  - 59) 아끈: 작은.
  - 60) 빗창: 해녀들이 물질할 때 전복을 채취하는 도구.
  - 61) 갈코리: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소라 성게 등을 따는 데 쓰는 도구 호미와 비슷함. = 깔쿠리.
  - 62) 봉간: 주워서.
  - 63) 영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속한 지명(地名).
  - 64) 송동바구니: 아주 작은 바구니.
  - 65) 춤데: 낚싯대.

“나가 봉갓우다.”

“이레 오라. 그 속에 은(銀)이 드나, 금(金)이 드나 허걸랑 느네덜 갈랑 쓰고, 그 괍은 나 봉초(封草)괍 헤민 좋키여.”

“어서 기영 협서.”

블락 춤데로 [음영] 상거심 조심통쇄 질로 절강허게 열엇더니 눈은 펠록 세는<sup>66)</sup> 멜롱 공진 파득헤영,

“아이고 요놈이 씨베난 년덜아, 요기 은이여. 금이여.”

블락 춤데로 케우리난,<sup>67)</sup> 아이고 일곱 집이 일곱 줌수덜토 나 앞더레 온 건 빗창으로 케쿠려불고, 깔쿠리로 케쿠려부난, 바당에 물질허레 가난 머리짱<sup>68)</sup> 들런 못허고, 눈엔 보은낭게, 한낭게 줌속 끼와불고, 우으로<sup>69)</sup> 어깨짱, 알로<sup>70)</sup> 설사짱(泄瀉症), 배(腹)에 포만짱(飽滿症), 난 일곱 집이 일곱 줌수 아프난, 아무 떼도 아프난, 삼양 이원신한티 문복(問卜)지레 가난,

“이거 떡도 일곱 게, 밥도 일곱 게, 술도 일곱 게 낱<sup>71)</sup> 칠성제(七星祭)를 지네렌.”

허난, 떡이여. 밥이여. 술이여. 궤기여. 헤연 일곱 정반씩 난 칠성제를 허난, 어느 떼 아파난 것도 닳지도 안 헤연 다 낫앗구나. 일곱 집이 일곱 줌수 바당에 물질 허레 가민 데전복, 소전복, 문둥구쟁이,<sup>72)</sup> 몽게여,<sup>73)</sup> 전복망사리 ㄱ득ㄱ득 헤연 오라근 부제(富者)로 잘 살아가난,

“나도 헤여보저.”

“나도 헤여보저.”

옛날은 평사동(平沙洞)으로 함덕(咸德)으로 칠성제(七星祭)를 헤여 가난, 훈 물 두 물 할망 급서왕 한집 곶아,

“이거 보라. 마흔으둑 상단곶, 서른으둑 중단곶, 스물으둑 하단곶. 훈 물, 두 물, 서 물 뒤어도 아무도 아니 좃앙 오람저. 저거 강 네좃아동 오렌.”

허난, 급서왕이 강 곤는<sup>74)</sup> 말이,

“너네덜 이 밋을 아니 떠나민 선흘곶<sup>75)</sup> 도올랑<sup>76)</sup> 들굽낭<sup>77)</sup> 작데기 끈어당 케우려볼켄.”<sup>78)</sup>

허난,

“오라. 가게.”

헤연, 아기 데려 앓영 열로 가코 풀섭 속으로 솔솔 허멍 금성동을<sup>79)</sup> 넘어간다. 함덕 금성동을 넘어가난 가단 보난 높은 동산이로구나. 올라 사난 여기 만세만 불럼직헌<sup>80)</sup> 동네여. 만셋 동산으로<sup>81)</sup> 이름을 지와 두고, 신촌(新村)은 들어가난 열네문(烈女門) 가에 들어가젓구나. 이

66) 세: 혀(舌).

67) 케우리난: 흘뿌리니.

68) 머리짱: 머리 아픈 증상.

69) 우으로: 위로.

70) 알로: 아래로.

71) 낱: 놓아서.

72) 구쟁이: 소라.

73) 몽게: 문어.

74) 곤는: 말하는.

75) 선흘곶: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숲.

76) 도올랑: 올라서.

77) 들굽낭: 두릅나무.

78) 케우려볼켄: 이리저리 흠어지게 하겠다고.

79) 금성동: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속한 지명(地名).

80) 불럼직헌: 부를 것 같은.

동넨 열녀가 남직허다. 열녀문으로 세와 두언, 신촌은 가난 걸어도 그디 걸어도 그디 아이고 요긴 짐도 질다.<sup>82)</sup> 진드리로<sup>83)</sup> 이름 지와 두고. 삼양(三陽)은 들어가난 장수덜이 큰 돌 들런 이레 들러 놓고, 저레 들러 놓고 뚝돌동산으로<sup>84)</sup> 이름을 지와 두고, 화북(禾北)은 내려가단 보난 네창<sup>85)</sup> 바위 잇엇구나.

“아기덜 이레 오라. 목은 옷 벗영 가시낭더레 걸치라. 물 속더레 들어강 모욕(沐浴)허렌.”

모욕헨 나오난, 물이 펜칙펜칙허난 베릿네엔<sup>86)</sup> 이름을 지와 두고, ㄱ으니믄를<sup>87)</sup> 올라사난 애가 콧콧 물랐구나. 제주 백성(百姓)덜 ㄱ으니믄를 올라 사민 송스(訟事)도 잇어불만 헐로구나. 동(東門), 서문(西門), 남문(南門) 다 썩연 못네 지엇구나. 산짓물은<sup>88)</sup> 가락콧물이엔도 험니다. 산짓물에 물도에 간 소랑소랑<sup>89)</sup> 누원 잇이난, 송대장(宋大靜) 부인은 물 질레<sup>90)</sup> 가단 보난 베엄이 일곱이 살언 잇엇구나. 앞치메 벗영,

“우리 집이 테운<sup>91)</sup> 조상이러건 이레 담아집셴.”

물 질언 나완 보난 담아지엇구나. 갓언 오란 송대장 집더레 놓안 송대장 부인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로 잘 살앗구나. 헝라 헝를은 나간 보난 관덕정(觀德亭) 마당에 들어갓구나. 관덕정 마당에 들어간,

“아이고 요기 잇일만 허덴.”

잇이난, 이방왕(吏房房), 성방왕(刑房房)덜이 케우려부난, 벤득자, 소득자 겐 베부른동산으로 이름을 지와근에 이디도 갓저. 저기도 갓저. 경 굽네다만은,<sup>92)</sup>

“이젠 나 아기덜아, 오라. 우리 다덜 허터저야 뵐로구나. 큰똥애긴 어디 갈티?”<sup>93)</sup>

“난 관덕정 동앞마당 츠지우다.”

둘췌똥아기,

“추수(秋收)할망으로 들어삿구나.”

셋췌똥은,

“이방왕 성방왕도 츠지우다.”

넷췌똥아덜은,

“동가원(東果園) 서가원(西果園)이우다.”

다섯췌똥아는,

“동창고(東倉庫)도 네 츠지 서창고(西倉庫)도 네 츠지.”

으섯췌똥애긴,

“옥(獄)할망으로 츠지허쿠다.”

일곱췌똥엔도 곱고 으섯췌똥엔도 험니다.

“메족은똥애긴 어딜 갈티?”

81) 만세동산: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속한 지명(地名).

82) 짐도 질다: 길기도 길다.

83) 진드리: 진드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너른 들판을 이르는 지명(地名).

84) 뚝돌동산: 제주시 삼양동에 속한 지명(地名).

85) 네창: 내(川).

86) 베릿네: 제주시 화북동에 속한 지명(地名).

87) ㄱ으니믄를: 제주시 건입동에 속한 지명(地名).

88) 제주시 건입동에 속한 지명(地名).

89) 소랑소랑: 가늘고 길쭉한 모양.

90) 물 질레: 물 길러.

91) 테운: 인연 잇는.

92) 굽네다만은: 말합니다만은.

93) 갈티: 갈 테냐.

“나는야 뒤으로 가민 감낭<sup>94)</sup> 알, 배낭<sup>95)</sup> 알, 미깡낭<sup>96)</sup> 알로 청주쟁이,<sup>97)</sup> 흑주쟁이 어멍 우리덜 썬 오라나난 한라산을 띠로 돌령 자정(坐定)허쿠다. 어멍은 어딜로 가쿠과?”

“날은 애기덜아, 난 연양상고팡(上庫房)에 들어강 검은 독은 누른 독 데두지,<sup>98)</sup> 소두지, 큰 낭(木) 알이, 족은 낭(木) 알이, 소라만단지로 자정(坐定)을 허키여. 설운 나 애기덜아, 다 자정 헐 디 자정헤엇당 정월 나건들랑 과세(過歲) 받을 떼랑 요량<sup>99)</sup> 소리 들영 다 좃양오렌.”

영 헤연 마련을 헤엿수다 .

#### 칠성본풀이>비뉼

옛날은 동짓돌 나면 7실<sup>100)</sup> 들언 좁쌀 네오민 오메기떡<sup>101)</sup> 헤여근, 동짓돌 첫 축일(丑日) 날 축일도 허고, 주쟁이도 묵은 각단 세 각단 헤여당 주쟁이 짱 한라산 띠를 돌령 열두 곡식(穀食)을 갈아 먹영 살암수덴 헤영, 밧디 농스 들이치는 거 백지에 다 싸건 주쟁이 알에 제를 묻으는 법입네다. 아방국은 장설룡데감, 어멍국은 송설룡부인 소피골 고장 남밭 솟아나던 아리룡 애기공단 애기 비단애기 산으론 가민 산신칠성(山神七星), 물론 가민 요왕칠성(龍王七星), 베론 가민 선양칠성(船王七星) 집이 오민 터신인 듯, 지신(地神)인 듯 궁기궁기마다<sup>102)</sup> 들어갓당 청명(淸明) 삼월 뉼민, 궁기궁기 나오른거들랑 하다 이집이 돌아보지 맙서. 이 사라봉 큰굿 사무실 안네 돌아보지도 맙서. 죽은 설로 산 설로 눈에 펜식허게 허지 맙서. 우영팻도<sup>103)</sup> 돌아보게 맙서. 축담도 밧게<sup>104)</sup> 허지 맙서. 마당 구석 올레 구석 무똥<sup>105)</sup> 구석 돌아보게 허지 맙서. 양에왓디<sup>106)</sup> 사령 누게 맙서. 미나리왓디 사령 누게 맙서. 독통에도<sup>107)</sup> 사령 누게 허지 맙서. 날레<sup>108)</sup> 널어논 디도 사령 늑게 허지 말양, 독헌 인간덜 만나민 옛날은 긴지름도 뿌려불고, 석이(石油)지름도 뿌려불고, 소금도 뿌려불고, 독헌 인간덜 만나민 소주(燒酒)에 술 뉼영 담아불고, 옥항에 허멍이 선달도 헤여근에 허는 법이우다. 아홉 번 죽영 열 번도 환생허는 법이웁네다. 칠성 한집님아 세경 너른 땅 멩에 진 밧디 농스 지건들랑<sup>109)</sup> 하다 씨 일러불게<sup>110)</sup> 허지 맙서. 불리<sup>111)</sup> 앓는 걸랑 단지만씩 잘 낮게 험서. 고고리<sup>112)</sup> 차는 걸랑 덩드령<sup>113)</sup> 마께만씩<sup>114)</sup> 잘허고, 옛날도 궤는<sup>115)</sup> 갈민 7물아사<sup>116)</sup> 헤먹웁네다. 궤는 물을 아홉동

94) 감낭: 감나무.

95) 배낭: 배나무.

96) 미깡낭: 굴나무. ‘미깡’은 일본어 *미칸*.

97) 주쟁이: 주저리. ‘주저리’는 띠나 짚으로 등글레 엮어 가리 꼭지 따위에 덧덮는 물건.

98) 데두지: 큰 뒤주. 쌀 따위를 담아 주는 세간.

99) 요량: 요령. 심방이 들고 다니는 무구인 ‘멩두’의 하나.

100) 7실: 가을.

101) 오메기떡: 제주의 떡 종류 가운데 하나.

102) 궁기: 구멍.

103) 우영팻: 텃밭.

104) 밧게: 밧게.

105) 무똥: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106) 양에왓디: 양하 밧.

107) 독통: 닭장.

108) 날레: 별을 썬기 위하여 멩석에 널어놓은 곡식.

109) 농스 지건들랑: 농사를 지거든.

110) 일러불게: 잃어버리게.

111) 불리: 뿌리.

112) 고고리: 이삭.

113) 덩드령: 탄탄하고 미끄딱하며 등글넓적한 짚 따위를 두드리는 돌판.

114) 마께: 방망이.

115) 궤: 깨.

이 지영 살아불민 장마만 지문 꺾놓스는 아니 지는 법이우다. 보리에랑 테우리에 제초(除草) 시겨주고, 조에랑 와시리 들게허지 맙서. 나부역, 두무역 일게 허지 맙서. 미강냥 밧디도 나부역, 두무역 허게 허지 말아근에, 먹을 연, 입을 연 동창고도 체웁서. 서창고도 체웁서. 남창고, 북창고도 체와 줍서예. <예 칠성본 풀엇우다예.>

---

116) ㄱ물아사: 가물어야.